

심사원소개



심사위원장 이수향 (문예동중앙 무용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

- 심사원 김경애 (문예동호고지부 위원장)
- 김청자 (문예동도끼이지부 무용부장)
- 김향순 (문예동중앙 사무국 부장)
- 김정숙 (문예동도끼이지부 위원장)
- 권일선 (조선무용연구소 《나래》소장 : 시가현)
- 리미남 (리미남무용연구회 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
- 문숙례 (금강산가극단 무용부 부부장)
- 박선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
- 송영숙 (금강산가극단 문예국 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
- 윤수지 (문예동중앙 무용부 위원, 문예동가나가와지부 부위원장)
- 현계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예술가)

(자모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

제 7 차 성적



연구소 초급부 독무부분	1 등	물동이춤	마이조선무용연구소	김미사
	2 등	팬이춤	조선무용교실 <무희>	려설아
	3 등	팬이춤	<춤> 조선무용교실	백성란
	3 등	팬이춤	리미남무용연구회	박성아
	입선	팬이춤	미예무용교실 <이쁜이>	허모모
	입선	소고놀이	조선무용교실 <무희>	리미하
연구소 중급부 독무부분	1 등	즐채방울춤	<춤> 조선무용교실	김향나
	2 등	장고춤	조선무용교실 <무희>	김세나
	3 등	북춤	<춤> 조선무용교실	송춘희
	입선	직포공의 마음	<춤> 조선무용교실	송경희
	입선	젊은 무희	리미남무용연구회	리사애
	입선	물동이춤	조선무용교실 <무희>	리리용
	입선	직포공의 마음	<춤> 조선무용교실	석미월
	입선	소고춤	리미남무용연구회	최선아
연구소 고급부 독무부분	1 등	소고춤	리미남무용연구회	리려화
	2 등	조개춤	마이조선무용연구소	김양미

《가조》 독무부분

금상	기쁨	문예동도까이지부	정유의
은상	복춤	문예동후꾸오까이지부	조미학
동상	소고춤	가가와	박지영
동상	부채춤	문예동오사까이지부	조부사자
동상	청춘의 기쁨	문예동니시도꼬지부	정진

중무부분

금상	바라춤	문예동도꼬지부
금상	소고춤	문예동도까이지부
은상	우리 장단이 좋아	문예동오사까이지부
은상	사랑춤	문예동교또지부
은상	방울춤	문예동효고지부
동상	바라춤	문예동도까이지부

군무부분

금상	봉선화	문예동효고지부
금상	그날에 활짝 피리	문예동오사까이지부
은상	환희	문예동도꼬지부
은상	장고춤	문예동효고지부
동상	무녀춤	문예동교또지부

《나조》 독무부분

금상	장고춤	문예동도까이지부	윤마나
은상	바라춤	문예동도꼬지부	정미화
은상	복춤	문예동효고지부	서미래
은상	젊은 무희	문예동교또지부	김세리
은상	젊은 무희	문예동오사까이지부	김향희
동상	손복놀이	문예동도까이지부	리재화
동상	복춤	문예동오사까이지부	남애미

중무부분

금상	소고춤	문예동효고지부
은상	경북춤	오까야마조청무용소조
동상	신바람	문예동오사까이지부
동상	소고춤	문예동교또지부
동상	패랭이춤	문예동도꼬지부

군무부분

금상	박관무	문예동도꼬지부
금상	꽃바라춤	문예동효고지부
은상	손복춤	문예동효고지부
은상	1월의 아침	문예동도까이지부
동상	우리의 금수강산	문예동오사까이지부

단체상

..... 문예동효고지부



舞踊家 崔承喜

조선민족무용기본동작

朝鮮民族舞踊基本動作 4枚組 ¥4,500-

収録内容 女子基本 17動作 映像 DVD 1枚 男子基本 21動作 映像 DVD 1枚
男女基本動作 音楽 CD 各1枚
購入問合せ TEL03-5980-8911 (担当:安)

主催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 舞踊部

協賛 文芸同東京支部 舞踊部
文芸同神奈川支部 舞踊部
文芸同西東京支部 舞踊部
文芸同東海支部 舞踊部
文芸同京都支部 舞踊部
文芸同大阪支部 舞踊部
文芸同兵庫支部 舞踊部
文芸同福岡支部 舞踊部
文芸同北海道支部 舞踊部

賛助金協力団体

岡山朝青舞踊部
金英蘭舞踊研究所
朝鮮舞踊教室<舞姫>
李美南朝鮮舞踊研究会
三重朝鮮舞踊教室<イプニ>
Korean 民族舞踊教室ミヨン
舞<MAI>朝鮮舞踊研究所
姜輝鮮朝鮮舞踊研究所
朝鮮舞踊教室 HANA
朝鮮舞踊教室<チュム>
<舞姫>姫路朝鮮舞踊教室

写真提供

カメラマン 金日泰 (Kim Irute)

《조선의 무희－최승희》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회고록《세기와 더불어》(5, 권55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최승희는 조선의 민족무용을 현대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민간무용, 승무, 무당춤, 궁중무용, 기생무등의 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민족적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현대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무용가－최승희는 일제식민지의 가혹한 통치가 극도에 이르고있었던 시기, 우리 민족무용이 무대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있었던 시기에 조선무용의 춤가락들을 탐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대인들의 감정에 맞는 무용작품들을 창작공연함으로써 세계에 조선무용의 이름을 떨치었다.

조국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각별한 배려로 민족이 낳은 재능있는 무용가로 이름을 남긴 그의 생일(11월 24일) 100돐에 즈음하여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최승희 생일100돐을 기념하여 재창조한 창작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가 상연되며 그의 무용업적을 론하는 《연구토론회》와 기념전시회, 또한 《최승희조선민족무용기본》의 시범공개와 그가 창작한 무용소품공연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조선의 무희－《최승희》

여기서는 무용가 최승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1. 현대무용의 습득

최승희는 191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떨어졌을 때 경제적으로도 무너져가는 량반가문에서 나서자란 그는 1925년 숙명녀학교를 졸업

한다. 몰락되어가는 가정의 경제사정과 당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집필활동을 하던 오빠의 영향으로 도쿄의 음악학교에 급비생으로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나이가 1살 어리다는 리유로 입학이 보류된다. 서울의 사범학교 입학시험에도 합격은 했으나 역시 나이가 어리다는 리유로 입학보류로 되고만다.

때마침 일본의 현대무용의 선각자로 이름 떨친 이시이바쿠(石井漢)일행의 서울에서의 첫공연(경성공회당)을 보고 오빠의 권유도 받아 무용연구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 때의 심정을 최승희는 자서전에서 《…일심으로 무용을 연구하고 무용예술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보자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회상하고있으며 그것이 무용가로 굳게 결심다진 중요한 원인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무사시사카이(武蔵境)에 있는 무용연구소에서 3년간 연구생활을 하게 된다.

연구생으로서 괴타는 무용수련을 하는 과정에 그는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들속에서 누구하나 무용을 지향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조선을 대표하여 향토의 전통과 풍물을 살려 무용을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며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의 큰 책임과 높은 긍지임을 간직하게 된다.

그로부터 1년반이 지난 1927년 고향-서울에서 독무《셀레나데》를 추게 된다. 또 그 이듬해인 1928년에도 2번째 서울공연을 하게 되는데 자기 힘과 역량에 대한 적지 않은 회의심과 신무용을 창조하고싶다는 충동으로 18살 때인 1929년에 조선으로 돌아와 자신의 《무용연구소》를 설립하게 된다.

최승희의 연구소에는 10여명의 연구생들이 들어왔으며 3년간에 9번의 신작무용발표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당시 그가 발표

한 작품은 거의다 이시이바꾸에게서 배운 현대무용작품들이었다.

그러던중 최승희는 1931년 20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고 딸(안성희)을 낳는다.

2. 조선춤과 현대무용의 결합

조선에서의 춤활동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된 최승희는 1933년에 다시 일본으로 왔다가 이시이바꾸의 방조를 받으면서 연구소를 가지게 된다.

한편 조선의 전통적인 민족춤을 찾아 내기 위하여 당시 조선무용의 명수로, 춤군으로 이름이 높은 한성준씨에게서 조선춤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1934년 9월 《령녀계(令女界)》주최의 녀류무용대회에서 첫 조선무용인 《에헤야 노아라》와 《엘레지》를 창작공연하고 사흘후인 9월 20일, 《니홍세이넝강》에서 제 1회신작무용발표회를 하여 신인무용가로서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이어서 1935년에 히비야공회당에서의 제 2회발표회를 가졌는데 그 때 발표한 《에헤야 노아라》, 《검무》, 《승무》, 《조선풍의 듀엣》등은 대호평을 받는다. 최승희는 자서전에서 이때부터 조선의 향토색이 짙은 민속춤과 고전을 현대화한 작품들을 창작하게 되었으며 조선춤과 현대무용의 결합을 구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후부터 해방전까지만해도 《가면의 춤》, 《세가지 코리안멜로디》, 《꼭두각시춤》, 《왕의 춤》, 《아리랑이야기》, 《무녀춤》, 《조립동》, 《봉산탈춤》, 《신로심불로》, 《즉흥무》, 《장고춤》, 《화랑의 춤》, 《산조》등 수십편을 창작하였다. 최승희의 인기는 계속 높아져 《반도의 무희》라는 영화제작도 추진하게 된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최승희는 미국과 구라파로 순회공연을 가게 된다.

최승희는 구미순회공연에서 시종일관 《조선의 무희(코리안댄서)》로 당당하게 간판을 내걸고 조선민족의 멋과 맛, 민족적이고 전

통적인 민족의 정서를 현대적수법에 기초하여 창작공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는 동양적인 춤도 창조하게 된다. 당시 일제식민지로 인하여 망국노의 신세이던 조선사람이 당당히 국제무대에서도 조선사람임을 주장하는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보살춤》, 《보현보살》, 《가무보살》, 《천하대장군》, 《육적의 곡》, 《석굴암의 벽화》, 《궁녀의 춤》등 최승희가 창작한 작품들은 당시의 세계무용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구미공연에서 돌아온 최승희는 일본의 대륙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전선위문》으로 조선과, 만주지방으로 떠나게 된다. 1942년 초의 일이다. 이때의 일로하여 최승희는 남조선에서 《친일파》로 찍히게 된다. 이 시기에는 《명비곡》, 《양귀비무지도》, 《향비》등의 중국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창작하게 된다.

1942년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신작 15작품을 포함한 32곡을 가지고 일본《데이꼬꾸극장》에서 장기독무공연(24번)을 하였고 같은 극장에서 1943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한 장기공연(23번)은 연일 만원으로 장내는 들끓었으며 거기에는 조선옷을 입은 조선사람들도 관람하였다고 한다.

고향으로 돌아간 최승희는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북조선으로 먼저 간 남편을 따라 1946년, 8톤짜리 발동선을 타고 인천항을 떠나 남포항에 들어서게 된다.

1946년이후 최승희의 예술활동은 김일성주석님의 각별한 배려와 국가적인 보호속에서 더욱 왕성히 벌어지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게 된다.

해방후 공화국에서의 무용창작과 무용공연활동, 무용후비육성에 대하여서는 다음 기회에 서술할 예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교수,
예술학학사, 공훈예술가
조선대학교 교수 박정순